

8月号

韓国

CIR レポート



国を守る人たち

軍人 (後編)

皆さん、こんにちは！韓国の国際交流員イ・スンファです。
前編に引き続き、軍の説明をします。

1. 入隊: 軍隊に入り、軍人になる事



↑ 基礎軍事訓練

髪を短く、すごく短く、日本の高校球児よりは少し長く切ってから、決まった日に訓練所に入所します。散髪せずに入所する場合には訓練所にいる軍人が切ってくれます。同じ坊主でも、美容師が作る坊主と軍人が作る坊主には少し違いがあるとか。一般的に昼食を食べてから入所しますが、この時に食べるものが社会での最後の午餐になります。

私は 2013 年 3 月 12 日に入隊しました。何を食べたか、いまだに鮮明に覚えています。骨付きカルビでした。

入所したら社会から持ってきた物を提出します。現金や化粧品は訓練所を出るときに返してくれます。そしてこれから軍隊で使う戦闘服、戦闘靴、活動靴(スニーカー)、体操服、下着などの普及品が支給されます。2-40 人が同じグループになり、同じ部屋で寝ます。就寝時間は夜の 10 時です。なぜ自分が今ここで横になっているのか。複雑な気

持ちを抱えて一晩を過ごし、朝6時になると部屋のスピーカーから起床ラップがなります。5週間の基礎軍事訓練の始まりです。

射撃(実弾射撃)、手榴弾(訓練所によっては模型を使うところもある。私の場合、本物の手榴弾でした。)、救急法、40 kgのバッグを背負って昼に30 km・夜に30 km行軍、戦闘方法など、基礎軍事訓練が終わったら、陸軍基準で残り1年5か月(2021年基準。2013年には1年8か月でした)勤務することとなる部隊に配置されます。

2. 自隊配置: 訓練所で新兵教育訓練を受けた兵士を勤務する部隊へ配置する事

自隊に配置されると環境が大きく変わります。日課が終わると売店にも行くことができます。電話はもちろんテレビも見ることができます。最近は携帯電話も使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そうです。多くはありませんがパソコンもあり、こじんまりした空間ですが器具を揃えている体力鍛錬室もあります。本を持ってきたら勉強もできます。

特に売店はお菓子や冷凍食品、カップ麺などを販売していて、高くもない軍人の給料を吸いまくる場所です。(2021年の軍人の給料は平均36万ウォンで、2013年の給料の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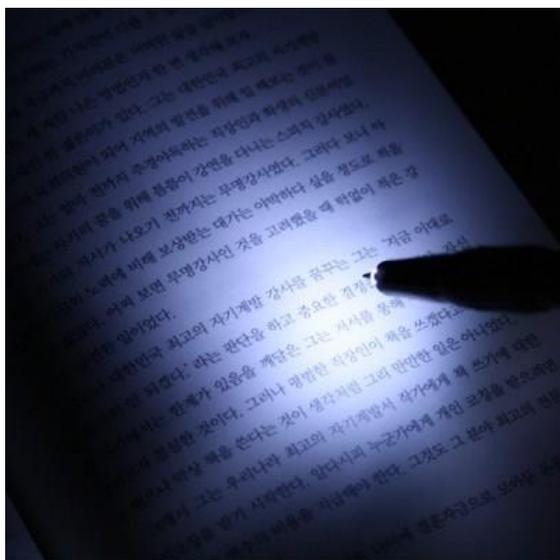


↑サイバー知識情報室

3倍です) しかも売っている食料品や化粧品には消費税がありません。民間人が友達や家族の面会をしに来た時、お菓子などをたくさん買って帰ったりします。

私が現役だった時は手紙をたくさん書きました。小説を読む時に、いい文章があったら、その内容を手紙にうつして当時付き合ってた方に送ったり、友達や両親にも手紙を書きました。その時も手紙を書く人はすごく少なかったのですが、携帯電話を使えるようになった今はもっと減ったんでしょうね。

就寝時間になって電気を消したら、その時から手紙を書くのが一般的でした。そこで作られたのがライトペンです。頭



↑ライトペン

の方を回すことで電気がつきます。多分軍以外では使われてないものだと思います。

そしてもちろん国を守ることが目的である組織ということで、毎日ではありませんが、

定期的な訓練があります。その中でも今回紹介するのは酷寒期訓練です。



↑酷寒期訓練

酷寒期訓練は名の通りで、一番寒い時期に行われる訓練です。40 kgのカバンを背負い、訓練場まで何十kmを歩いて、野外の訓練場にテントを建て、いろんな訓練をしてから、夜になると外のテントで寝ます。朝もらった紙パックの牛乳をテントにおいておくと、午後にはその牛乳が文句のつけようがない鈍器になっているのを確認できます。基本4泊5日ですが、事情により変わる時もあります。1泊だけになってもとにかく野営はします。

説明はしてませんが、酷暑期にする訓練の感想が「(つらくて)死にそう～」なら、酷寒期訓練の時は「これはもしかしたら本当に死ぬぞ」なんです。

3. 宗教

軍隊の週末は基本自由時間です。宗教活動もできます。もちろん外にある施設ではなく、部隊の敷地内にある宗教施設です。一般的には仏教、カトリック教、キリスト教があります。自隊配置後には宗教活動に参加する人は少ないですが、訓練所では人気があります。メインの理由はおやつをもらえるからです。チョコパイ、パン、運が良ければハンバーガーや炭酸飲料。外の食べ物を見る機会さえ与えられない中で、宗教活動の時だけ、食べることができます。

本当に運がよかったら電話もできます。私は1週間般若心経を全部覚えて、3分の電話ができるチャンスを得ました。

4. 転役:軍で、服役していた役種から他の種になる事

軍としての身分が終わ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これは正確に言うと現役兵から予備軍

へ、その役割が変わることを意味します。現役兵の生活が終わった後は、8年間予備軍という状態になります。そして定期的に決まっている教育時間があり、それに参加しないといけません。

5. にもかかわらず

軍隊の経験は20代のひとかけらとして残る記憶(思い出もしくは悪夢)ですが、決して軍で経験したことすべてがよい記憶だったとは言いきれません。徴兵され、軍で約2年間の時間を過ごすのはすごいストレスです。恋愛もしてみたいし、旅行もしたいし、海外に留学も行ってみたいし。

社会にいる友達たちがきらきら眩しいキャンパスライフを送っている姿を見ていると相対的剝奪感を感じます。一般的な大学生の場合、軍で2年、大学4-5年を済ましてから卒業、結局就職が大変厳しい最近の就職平均年齢は28歳だそうです。このような現状の中、極端ですが2年の無駄使いと表現する人も少なくありません。

にもかかわらず、私にとっては家族の大切さを改めて実感できた時期でした。もちろん個人差はあると思いますが、人生で1回くらいは経験してもいいかも、と思っています(まだ確信になっていません)。どちらかという、どうせ行かないといけないし、せっかくだからできるだけ有益な時間にしようという考え方でした。本もたくさん読みました。そして強制的に規則的な生活を送るようになるため、結果論ですが健康にはなります。運がよくて、いい仲間や友達にも出会いました。

・基礎軍事訓練、連合ニュース

<https://www.yna.co.kr/view/AKR20120127067600043>

・サイバー知識情報室、中央日報

<https://news.joins.com/article/21082984>

・ライトペン、テンバイテン(10×10)

http://m.10x10.co.kr/category/category_itemPrd.asp?itemid=1603561

・酷寒期訓練、月刊朝鮮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J&nNewsNumb=201303100039&page=14>

8 월호

한국

CIR 레포트



「군인: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후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국제교류원 이승화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대: 군대에 들어가 군인이 됨



↑ 기초군사훈련

미리 머리를 정말 짧게, 일본의 고교 야구부 선수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자르고, 정해진 날이 되면 훈련소에 가서 입소를 합니다. 머리를 안 자르고 입소한 경우에는 훈련소에서 바리칸으로 대충 짧게 밀어줍니다. 보통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입소를 하는데, 이 때 먹는 밥이 입대 전 사회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 됩니다. 저는 돼지갈비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에서 가져온 것을 반납하고, 앞으로 군에서 사용할 전투복(군복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식 명칭은 전투복), 신발, 체육복, 속옷 등 보급품을 받습니다. 이러저러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밤 10 시가 되면 취침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대체 왜 여기 있는가라는, 복잡한 마음때문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밤이 밝고, 아침 6 시에 울리는 기상 나팔과 함께 5 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이 시작됩니다.

사격, 수류탄(훈련소마다 다르지만, 저는 실제 수류탄을 사용했습니다), 구급법,

주간 30/ 야간 30km 행군 등 기초군사훈련이 끝나고 나면, 남은 1년 8개월 간 근무하게 될 부대로 배치됩니다.

2. 자대배치: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 훈련을 마친 병사를 근무할 부대에 배치하는 일

자대에 가면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매점도 갈 수 있고, 전화는 물론이고 티비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수지만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작지만 운동 기구를 모아놓은 부대에서는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들고오면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사이버지식정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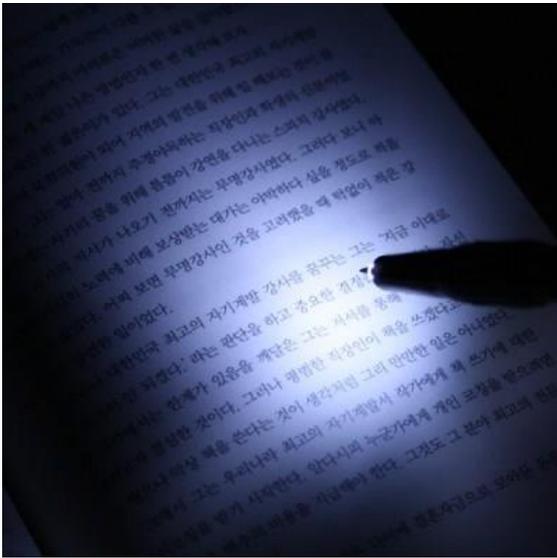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엄청 많이 썼습니다. 책을 읽다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으면 당시 사귀던 분에게 편지를 쓸 때 적어서 보내기도 하고, 친구나 부모님에게도 가끔 편지를 쓰고는 했습니다. 당시에 편지를 쓰는 사람은 많이

없었지만,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된 지금은 아마 더 줄어들었을 것 같네요.

취침 시간인 10시가 되면 불을 다 끄는데, 보통 그 때부터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라이트 펜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군인들과 소수의 일반인 분들만 알고 있을거예요.

그리고 물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혹한기 훈련'입니다.



↑ 라이트펜



↑ 혹한기 훈련

혹한기 훈련은 말 그대로 가장 추운 시기에 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40kg 가방을 메고, 훈련장까지 몇 십키로를 걸어간 다음, 야외 훈련장에 텐트를 세우고, 여러 훈련을 받고, 밖에 있는 텐트에서 잡니다. 아침에 받은 우유를 텐트에 넣어 놓으면, 둔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4 박 5 일이지만, 부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밖에서는 무조건 잡니다.

3. 종교활동

군대에서는 주말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밖에 있는 종교 시설이 아니라, 부대 부지안에 있는 종교시설에서요. 기본적으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있는데요. 자대배치를 받으면 종교 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이 많이 없지만, 훈련소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간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빵이나 초코파이, 가끔은 햄버거나 탄산음료까지. 밖에 있을 때는 당연히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이, 입대하고 나면 먹을 수 없으니, 그 맛이 여느때보다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전화도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주 내내 반야심경을 외워서 3 분간 전화를 사용했습니다.

4. 전역: 군(軍)에서, 현재까지 복무하던 역종(役種)에서 다른 종으로 바뀔

끝이 아닙니다. 이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현역병에서 예비군으로 그 역할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역 생활이 끝나면 8 년간 예비군으로, 1 년에 정해진 시간만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다녀왔다는 것은 하나의 청춘으로서 남아있는 기억이지만, 결코 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좋았던 것은 아닐겁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강제로 징병되어 약 2 년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연애도 하고 싶고, 아르바이트 해서 여행도 가고 싶고, 유학도 가보고 싶고. 밖에 있는 친구들이 눈부신 대학 생활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기도 하고, 결국 일반적인 대학생을 예로 들었을 때, 군대 2 년, 대학교 4-5 년을 다 보내고 나서야 졸업을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 남자의 평균 취업 연령은 만나이로 28 세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극단적이긴 하지만 2년 낭비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있어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실감한 기간이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인생에서 단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는 이왕 갈거니까 그래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오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구요. 그리고 강제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일단 건강해지기도 했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같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면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니까요.

• 기초군사훈련,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20127067600043>

• 사이버지식정보방,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1082984>

• 라이트펜, 텐바이텐

http://m.10x10.co.kr/category/category_itemPrd.asp?itemid=1603561

• 흑한기 훈련, 월간조선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J&nNewsNumb=201303100039&page=14>